

월요광장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실장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일자리와 먹을 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청년들의 창의성을 활용한 창업지원에 대한 관심도 포함되어 있다. 중고령자의 '생계형 창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지식기술창업'을 강조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창업은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 전제에 활력을 가져오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창업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과 제로 설정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 여러 나라도 저성

장에 따른 실업 해소와 신규 고용창출을 위하여 도전정신 함양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글로벌 경제위기의 와중에도 청년창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공 사례가 주목된다. 이스라엘은 국민 1인당 벤처캐피털 투자금액이 미국의 2.8 배, 유럽의 30배, 중국의 80배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벤처강국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창업이 많은 것은 창의성 중심 교육체계, 도전적인 문화, 위험분산 금융제도 등 3박자가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교육 측면에서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등 창의성을 중시하고 있다. 창의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는 세계 최고 비율인 국민소득 10% 수준을 재정으로 교육에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노벨상 수상자로 상장되는 세계적인 인재가 양성되고, 창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소개하는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 측면에서 계급이나 직급에 의한 수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놀랍고 당돌한 용기'(후즈파, chutzpah)를 강조하는 전통이 있다. 실제로 장군의 잘못을 병장이 바

로 앞에서 지적하는 등 관련 구성원끼리 논쟁과 비판을 통한 의사결정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과감성에 대한 존중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놀랍고 당돌한' 시도를 당연시 하여 벤처 창업에 많은 청년들이 나설 수 있는 사회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금융 측면에서 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실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정립되어 있다. 요즈마(Yozma) 펀드는 1993년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설립한 40억 달러 규모의 벤처캐피털로, 정부가 주도하였으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펀드는 투자한 창업이 실패할 경우에도 그 경험을 보대로 인재를 확보했다는 시각을 견지하여 실패자에게 새로운 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인구 780만명에 벤처기업이 3,850개로서 벤처기업 밀도가 1,844명당 1개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청년창업을 늘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거나 혁신해야 한다. 먼저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에서 창업의 의미와 가능성을 교육하는 등 도전정신

(entrepreneurship) 배양을 위한 '창업교육 훈련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담보가 아니라 기술이나 아이디어 및 도전성이나 혁신성 평가에 의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건실한 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창업금융제도 확립도 서둘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자들이 강점을 갖는 모바일 분야나 디자인과 같은 창조산업을 제조업 이상으로 우대해야 한다. 이는 향후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의 상당부분이 여기에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무형의 상품을 합당한 가격에 거래하는 시장의 형성이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질서를 세우고, 기업의 조직적인 불법을 실질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사법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을 받았고 해외 경험도 많아,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행태나 불법적인 요구 등을 견디기 못하기 때문이다.

신정부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가 어떻게 체워져 나가야 할지 명확해진 셈이다.

법조칼럼

착한 검찰을 꿈꾸며



김준성
광주지검 공판부 검사

자조차도 검찰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니 일반 국민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듯하다. 실제 검사는 물론 검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 친구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나고 있는 이미지로 인해 검찰이라고 하면 웬지 모르게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과연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국민이 원하는 '착한 검찰'은 불가능한 일일까?

비록 약 1년여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필자는 위 질문에 대한 해답 중 한 가지를 깨닫게 됐다.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다. 필자가 맡은 사건 중 차용금 사기 사건으로 고소인이 검찰에 출석해 진술할 일이 있었다. 법리적인 측면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의자를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고소인의 억울함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건이었다.

고소인에게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했다. 처음에는 피의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역할을 토로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수긍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더니 그동안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어울려온 심정이 쌓여 있었는데, 본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서 필자 및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 단지 고소인의 억울한 점에 공감해 준 것밖에 없는데,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국민 중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검찰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우에가 깊었던 친구 사이에 금전 문제가

발생해 서로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맡은 적도 있었는데, 대질 신문을 위해 양 당사자가 검찰에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 내용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 법리적으로 기소여부를 짚지기보다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이 들어 수사관과 함께 양 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만을 주장하면서 타협점을 찾기 힘들었으나, 오랜 기간의 설득 끝에 서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

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고소취하장을 작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검찰청을 방문한 날 서로 약수를 하면서 웃으며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됐다.

비록 감정이 상해 상대방을 고소했지만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러한 당사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뜻밖함을 느꼈고, 당사자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벌어진 검찰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 및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각종 기사를 보면서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검찰 본연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건 관계인들을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착한 검찰'을 꿈꾸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본다.

기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신태욱
전남도 지역계획과장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해가 대형화,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한쪽에선 태풍, 집중호우 강도가 거세지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반면 가뭄피해지역에서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재해는 인명을 비롯한 피해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지역은 방재기준을 초과하는 눈과 비가 내리는가 하면 대만의 경우 평소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더 많이 내리고 가뭄지역은 가뭄이 심해지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또한 독일과 폴란드 등 유럽지역은 자연 재해 증가로 홍수보험료가 7배나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석달 동안 계속된 50년만의 폭우로 국토의 30%가 침수되고 400여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앞으로도 북극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북반구 전체에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지금보다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0년 후에는 한반도 전역에서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이 달린 식물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나무심기 적기로 삼목일인 4월 5일보다 1개월 이상 당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극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

아내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북반구 전체에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것이지만, 방재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시스템 및 설계가 피해를 키운 결과로 판단된다. 현재 방재기준으로 예측 불가능한 기상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으로 기존 재해와 특성이 달라지고 있는 현상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방재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도시정책방안 마련이 절실히 시점에 와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바람길 등 기후변화 요소 분석하여 도시 및 지구차원의 토지이용계획, 건물높이(고밀, 저밀) 및 배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시방재 정책은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상시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각종 재난대비 설계기준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면 국가나 지방정부의 방재 노력과 더불어 개개인의 노력도 절실히다.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마당에 나무 심기 등 지구환경을 위해 작은 것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의 속도를 늦추거나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방재의 성공은 제도와 시스템의 정비, 재원확보를 통한 실행, 방재는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사람들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있다. 가장 깨끗한 곳 녹색의 땅 전남, 이제 제일 안전한 고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뜻이 아닌가 싶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순천만정원 박람회 관람객 불편 개선해야

20일 개장한 2013 순천만정원박람회 입장객 동원 면에서는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고 한다. 오는 10월31일 까지 6개월간 400만 명을 목표로 한 관람객이 개장 첫날 목표인 3만1천500명을 초과 달성하고, 이틀째인 21일에는 6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면서 흥행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운영 및 편의제공 등은 미흡 했다는 지적이다. 박람회장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람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이다. 회장에는 운영요원, 정원해설사, 자원봉사자 등 총 730여 명이 배치됐지만 안내만 전달하는 요원은 40여 명에 불과해 터져 나오는 불만을 잡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원해설사도 18명 밖에 되지 않아 111만2천㎡의 광대한 박람회장을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식당이 부족해 회장 내 식당 4곳, 페스트푸드점 5곳 등 9곳에는 장시간 줄을 서야 했지만 운영과 편의제공 등은 미흡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위원회와 순천시 등은 안내 요원과 해설사, 식당 등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개장 초기, 운영 미숙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비판을 받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수도 자기반성 통한 재도약할 때다

광주가 문화수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작품의 상황은 진정 광주가 문화수도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한다.

그 핵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내년으로 10년째 접어들지만, 광주의 인적·물적 문화인프라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시민들은 문화의 소비자일 뿐 문화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문화인프라는 물론 도시의 체질을 문화적인 토양으로 바꾸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를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 모두가 반성하고, 재점검해 볼 때다.

내년 개관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낸 문화전당 콘텐츠는 벌써부터 부실 논란에 휩싸여 있다. 1000석 이상 대형공연장은 광주문화예술회관 1곳뿐이고,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전국 하위권이다. 총장로, 금남로 등 도심의 무질서한 상가간판은 '흉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도심을 점령한 고양의 범암가는 무려 3326개에 달해 미관을 해친다.

문화예술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

無等鼓

"정말 꼭 오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데려드리고 싶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

지난 2010년 5월 5일 어린이날, 한센인들의 보금자리, 작은 사슴 섬 '소록도(小鹿島)'를 찾은 그는 두 곡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아쉬워하는 소록도 가족들에게 약속했다. "다음에 꼭 개인적으로 오겠다"고.

이날 소록도에서 공연을 가진 팀은 세계적인 거장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이끄는 영국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다.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한 이는 가왕(歌王) 조용필. 그가 히트곡 '친구여'와 '꿈'을 부를 때 소록도 가족들은 행복해 했다. 눈물을 글썽이는 병원 가족들도 있었다.

솔직히 취재를 가면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아슈케나지와 필하모니아를 듣고 보다니"하는 생각에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정작 공연장에서 가슴을 울린 건 조용필의 노래였다. 그가 '꿈은 하늘에서 잡자고~'하는 '친구여'의 첫 소절을 부를 때 이미 마음은

조용필과 소록도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공연 후 조용필의 모습이었다. 떠나기 전 병원 마당 식사 자리에 잠시 들른 그는 한센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인사하고 그들을 안아줬다. 이미 '노래'로 사람들을 치유한 그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위로했다. 이듬해 불암, 조용필은 자신의 밴드와 함께 훌로 소록도를 찾았고, 그들과의 악연을 지켰다.

10년만에 밝매되는 조용필의 19집이 화제다. 미리 공개한 '바운스'가 멜론 등 음원차트에서 싸이의 '젠틀맨'과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다. 또 오는 23일 오후 8시 새 앨범 'hello' 수록곡을 소개하는 쇼케이스 현장이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된다. 가

요계에서는 LP를 거쳐 CD, 음원시대까지를 모두 평정한 조용필의 저력에 다시 한번 놀라는 중이다.

45년 동안 조용필이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노래'의 힘과 함께 소록도 사람들의 손을 어루만졌던 그의 따뜻한 '마음'의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미연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